“자비 연기로 서로 살피길”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어 모든 생명이 평화와 안락을 이루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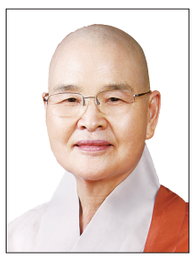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갈등과 단절, 고통이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비와 연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를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로터스월드는 이웃불교 국가에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비의 등불 하나씩을 밝히고 그 등불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명상으로 세상 밝힙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우리는 봉축의 등을 밝히며 서원을 세웁니다. 세계는 평화롭고,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하며, 국민은 안락하고, 사회는 화합과 따뜻한 인심이 흐르는 우순풍조 속에서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발원합니다.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청정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듯,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이 시대의 불안과 갈등을 정화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에는 선명상이 절실합니다. 선명상은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자기 중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가 각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 선명상은 가장 깊은 치유의 길이자 실천의 묘약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선명상의 실천이 함께할 때, 전쟁은 멈추고 평화는 실현되며,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여 온 누리에 평화와 안락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원력 하나로 모아 조직화”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평화와 화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맑고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올해 봉축표어처럼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부처님오신날만큼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번뇌와 고통들로부터 벗어나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안과 행복을 되찾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서, 흩어진 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조직화하고 그 힘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네팔에 이어 중국 선종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올바른 정신과 수행문화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역량 집중”

윤재웅 동국대 총장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류는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쟁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온 동국의 120년은 한국불교 교육의 산실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시대적 소명을 다해 온 뜻깊은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불자 양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라는 신념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히는 도량이자 세계 속에서 빛나는 명문사학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동국대가 삼보의 이름으로 더욱 빛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자비등불로 평화 정토를”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오늘,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내걸린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불성을 깨우는 자비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을 화려한 불상이나 경전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그 땀방울과 미소 속에 부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부처님오신날, 이 거룩한 날에 서원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진이 모여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가 평화로우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포교사들은 사자후를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눈부신 연등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행 실천합시다”

정구창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성평등가족부 차관이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 부처님오신날의 뜻깊은 봉축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한데 얽혀 많은 분들이 불안과 피로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연기의 지혜가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자 공무원은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의 실천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현현이라 믿습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밝혀 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약자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먼저 생각하는 정치”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연의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국회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대립과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중도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 통합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등불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는 깨달음의 빛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세계 평화 향한 기도 필요”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세대와 지역, 종교와 정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정한 세계 정세까지 더해져 개인의 삶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를 우리는 한마음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불교 전통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불자들에게 큰 자긍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원과 기도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은 연등 하나하나에 우리의 서원을 담아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여성 불자들은 부처님 탄신 이후 지금까지 가정과 사찰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 따뜻한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모습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작은 배려와 아낌없는 나눔의 정신,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꼭 필요한 세상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조금씩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차별과 갈등을 넘어 공존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세상 밝히는 정론 서원”

윤호섭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사부대중과 함께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선 2600여 년 전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스스로가 존엄한 지혜의 등불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분별심이 깊어지는 오늘날, 우리 불교 기자들의 소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현장의 치열함 속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거룩한 수행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공양입니다. 우리는 정론(正論)의 펜 끝으로 세상을 맑히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화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언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의 목격자’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불자님과 동료 기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벽산 암현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보명
(원로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직무대행 성림
(중앙종회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용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제주교구종무원장 관행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